

2012년 해외건설 수주 700억 달러 달성할 듯

- 금년은 10월 현재 400억 달러 기록, 연말까지는 600억 달러 넘어설 전망 -

김 태 업 | 해외건설협회 정보기획실장

20 11년은 연초부터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재스민 혁명과 중동 소요 사태를 비롯하여 동일본 대지진, 미국 신용 등급 강등 및 글로벌 재정 위기라는 메가톤급 이슈가 잇따르면서 근래 들어 보기 드물게 어수선했던 한 해로 남을 전망이다. 이 가운데 얼마 전 카다피가 사망하여 리비아 내전이 공식적으로 종식되면서 향후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는 전후 복구사업 참여를 위한 국가간 각축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각국의 재정 위기가 연쇄적으로 불거지고 있어 금융시장은 물론, 각종 원자재 및 상품 시장과 더불어 건설시장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는 작년 716억 달러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도 UAE 원전과 같은 초대형 수주가 없는 상황에서도 600억 달러 이상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양호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600억 달러 이상 수주 예상

2011년 해외건설 수주는 10월 현재 400억 달러

(448건)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UAE 원전 계약 금액이 186억 달러로 워낙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한다면 올 수주 금액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으로 불거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세계 각국의 원전 발주 계획의 철회와 유보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과 기대를 모았던 200억 달러 규모의 브라질 고속철도 프로젝트 역시 수주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수주 규모 400억 달러를 돌파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입찰 대기 중인 물량과 수주가 유력한 프로젝트 물량들을 종합한다면 600억 달러 이상의 수주가 무난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2억 달러를 수주하며 전체 수주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 지역은 UAE 원전 수주를 제외하면 전년 동기(253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쿠라야 민자 발전소 프로젝트(21억 달러), 안부2 발전&담수 프로젝트 PKG1(10억 달러) 등의 대형 공사 수주에 힘입은 사우디에서 작년보다 53% 급증한 139억 달러를 수주했다. 사우디에서의 수주가 이치

럼 활발한 것은 최근 발주 물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수주 내용도 담수, 발전, 정유 등과 함께 각종 설비공장을 비롯한 일반 산업 분야와 통신 및 에너지 전력 분야 등의 기간산업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이라크와 UAE, 오만 등에서도 대형 발전소 공사를 수주하여 수주 실적 상위 국가로 자리잡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5% 가량 늘어난 114억 달러를 수주하며 중동 지역과 더불어 우리 업체들의 주력 시장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수주 건수에 비해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점차 대형화하고 있는 발주 물량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각각 28억 달러를 수주하였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14억 달러를 수주하여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5배 가량 수주 실적이 증가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토목, 건축 분야의 프로젝트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6%, 46% 증가하면서 수주를 견인하고 있는 양상이며, 플랜트 분야는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그치고 있다.

이 밖에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도 각각 15억 달러 및 8억 달러를 수주했다.

상승세 지속, 내년도 700억 달러 달성할 듯

2012년에도 우리 업체들의 해외건설 수주는 최근의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수주 금액은 7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유럽 재정 위기가 불러온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글로벌 건설시장의 위축 또한 우려되고 있으나, 지난 2008년의 금융 위기와는 달리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인한 유가 폭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전체 수주에서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동 지역의 민주화 사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기존에 예정된 발주 물량에 더해 각종 복구사업들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다 연초 예상했듯이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의 민주화 사태에 영향을 받은 주변국 정부들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 인프라 발주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긍정적인 수주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사우디아에서의 발주 증가는 2012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석유화학 프로젝트 중심으로 1,250억 달러에 달하는 5개년 투자 계획을 시행하고 있고, 리비아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1,2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전후 재건사업에 대한 발주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2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르에서도 관련 인프라 시설 발주가 꾸준히 이어질 예정임에 따라 우리 업체들의 수주 활동은 어느 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리비아의 경우 과도정부 출범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 상황과 더불어 親카다피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 네트워크를 시급히 현실화하는 문제 등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막연한 기대를 바탕으로 한 접근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내전 종식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업체들이 대형 플랜트 공사를 중심으로 치열한 수주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주 전략 수립에 어느 때보다 만전을 기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시아에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인도, 중국을 중심으로 공공 프로젝트 발주가 지속될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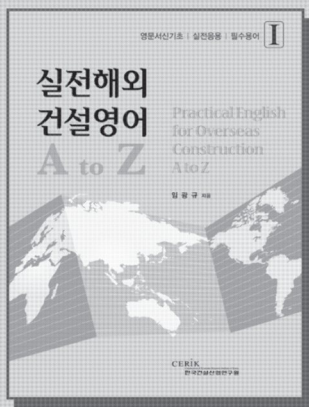
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최근의 수주 증가 추세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12차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인프라부문 개선을 위해 향후 5년 간 1조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진 인도의 경우 총 580억 달러 가량의 석유화학단지 조성 및 관련 철도, 도로 및 항만을 추가 건설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전통적인 동남아 중심권 국가들의 공공 프로젝트 발주량 증가 전망과 더불어 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주 증가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는 현재까지 큰 수주 실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브라질의 고속철과 제철소, 아프리카 가나에서의 대형 주택사업 등 우리 기업들이 끊임없이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수주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구체화될 경우 2012년에는 수주 금액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이 취약하여 자체 발주 공사가 드문 편이지만 국제사회의 ODA로 추진되는 공사와 함께 자원 개발과 연계한 인프라 건설사업에서의 수주 증가가 예상된다. 유럽발 재정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되고 실물경기까지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시점이지만, 2012년 해외건설시장은 여러 정황상 과거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크게 우려할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우리 산업 구조와 해외건설 분야가 해외 변수에 유달리 취약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 업체들의 주력 시장인 중동과 아시아 지역의 시장 전망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데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 역시 과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와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건설 수주 확대 추이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 둔화가 가시화될 경우 유가 하락으로 인한 중동 지역의 발주 규모 축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 간 수주 경쟁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CERIK

도 · 서 · 안 · 내

실전해외건설영어 / 임광규 지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펴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건설기업의 글로벌 건설 인력 양성을 통한 국제 건설시장 진출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총 5권의 「실전해외건설영어」 출간을 기획하고 이 중 제1권을 지난해 발간하였다.

「실전해외건설영어」은 영문 서신 작성의 기초부터 해외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던 400여 건의 영문 서신 사례를 편집, 주석을 달았다.